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외신인용기사를 중심으로

송연석
(한국의국어대)

1. 서론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종이신문, 종이신문의 인터넷판, 인터넷신문, 여기에 제도권 기자 및 시민기자들의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까지 가세하면서 뉴스 선택의 폭이 날로 넓어지는 추세다. 2010년 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뉴스 이용률 면에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유료 일간지의 경우 인터넷 뉴스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한국인이 접하게 되는 뉴스는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다.¹⁾ 이 같은 추세는 외국 우수 정론지 기사를 발췌, 번역, 보도하는 외신인

1) 2010.6.11 OECD 발행 ‘뉴스와 인터넷의 진화(The Evolution of News and the Internet).’

용기사에서도 관찰된다. 현재 국내 주요 일간지가 보도하는 외신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 아래 연합뉴스 기사가 번역, 작성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2010년 연합뉴스가 배포한 기사를 기준으로 자주 인용된 외국신문은 뉴욕타임스(9,765건), 월스트리트저널(1,274건), 워싱턴포스트(695건), 파이낸셜타임스(656건) 순인데, 이들 역시 2005년에 비해 많게는 8배(NYT), 평균 1.5-2배 가량 증가했다²⁾. 과거에 비해 일반인이 외국 언론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의 양적 팽창이 반드시 내용면에서 질적 개선을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흔히 객관성과 중립성이 꼽히지만, “현실의 중립적 표현이란 것은 없다”고 단언한 피올러(Flower, 1987: 67)의 말처럼, 언론이 제시하는 현실은 이데올로기, 상업성, 직업적 관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송용희, 2007: 230). 본 연구는 원문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신 번역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내 외신인용기사는 별도의 전문 인력과 관련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연합뉴스가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연합뉴스라는 창구를 통해 외신 반응을 접하게 되는 만큼 번역의 정확성이 특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기사의 번역 품질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외신인용기사는 원천텍스트 전문을 번역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연합뉴스라는 기관 혹은 소속 기자의 관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독자들은 외신 보도 내용을 언어만 바꿔 그대로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보수 혹은 진보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내 특정 신문의 시각에서 해석된 외신 기사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합뉴스 기자 겸 번역자, 나아가 연합뉴스라는 기관의 관점과 이데올로기로 재해석되고 재맥락화된 기사를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신문사 및 기사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언론학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김정현, 2001; 박선희, 2002; 이원섭, 2006, 최현주, 2010

2) 연합뉴스 홈페이지 검색으로 집계한 수치임.

등), 외신번역과 관련된 연구로는 CNN 뉴스텍스트에서의 인용의 문제를 고찰한 강지혜(2008)와 뉴스위크 한국 관련 기사 번역에 대한 평가와 번역의 사실 구성 및 포지셔닝을 연구한 강지혜(2004, 2010), VOA 뉴스 번역을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연구한 박소영(2007), 뉴스위크와 코리아헤럴드 번역을 연구한 김영신(2003) 등이 있을 뿐, 외신 전문(全文)번역이 아닌 발췌번역과 인용이 주를 이루는 외신인용기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신인용기사 중에서도 특히 연합뉴스가 번역해 작성, 배포하는 외신인용기사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예산결정권 등 관리감독을 맡은 이사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등 사실상 준 관영 언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일반 국민보다는 정부와 국내의 언론기관이 주 고객이란 점, 주 수입원이 상업광고가 아니라 언론사 고객과 정부로부터 받는 구독료라는 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등, 일반 민영 언론사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용과 이동훈(2004)은 민영 신문사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정부 관련 뉴스 제작에는 정부의 영향력보다 광고주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연합뉴스는 상기 특징으로 인해 일반 민영 언론사와는 다른 성격을 띠며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합뉴스의 외신번역 및 인용기사 작성을 일종의 제도적 번역으로 보고, 언론사의 이데올로기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합뉴스와 여타 언론사의 천안함 침몰사건 외신보도 번역 및 인용 기사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과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유난히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라는 점에 있다. 정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준 관영 언론사와 정부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영 언론사 간에는 번역 전략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하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1) 천안함 사건 보도와 관련, 준 관영 언론의 성격을 띤 연합뉴스의 외신번역은 민영 언론사들과 비교해 어떤 거시적, 미시적 차이를 보이는가?

(2) 연합뉴스의 외신번역에는 친정부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미디어 프레임과 내러티브

세상을 인식하는 ‘틀’을 의미하는 프레임(frame)에 대해서는 사회학 및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고프만(Goffman, 1974)과 태넨(Tannen, 1993) 등 여러 이론이 있지만, 미디어 연구에서는 특히 텍스트 분석에 ‘미디어 프레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디어 프레임의 정의 역시 다양한데,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키는 과정”으로 본 엔트먼(Entman, 1993: 52)을 비롯해, “현실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뉴스다운 이야기를 선택, 가공, 편집해 현실을 바라보는 틀로서 제시하는 것”(이준용, 2000: 95),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 패턴”(Gitlin, 1980: 7) 등 여러 가지다. 여기서 공통적인 핵심 개념을 뽑아보면 ‘선택과 배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자가 이를 어떤 프레임에서 보도하느냐, 즉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특정 측면이 누락,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여전히 일관성을 갖췄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내러티브(narratives)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베이커(Baker, 2007: 154)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그렇다고 믿게 되는, 또는 적어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공적, 개인적 이야기”이다. 즉 내러티브만 잘 갖춰진다면 특정 부분이 누락, 배제된 기사라도 독자가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머즈와 김슨(Somers and Gibson, 1994, Baker, 2007 재인용)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시간성(temporality), 상관성(relationality),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인과성(causal emplotment)이라는 네 가지 상호의존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특히 인과성은 독립적인 사건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시간적인 순서나 범주상의 순서에 우선한다. 베이커는 또한 인과성이 개별적인 명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연결해줌으로써 그에 대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Baker, 2007: 155).

소머즈와 김슨의 분류에 따르면 내러티브에는 존재론적 내러티브

(ontological narratives), 공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s), 개념적 내러티브(conceptual narratives), 메타 내러티브 네 종류가 있다. 존재론적 내러티브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서 개인적이고 사회성을 띠며, 공적 내러티브는 가족, 공공 기관, 정치 단체, 언론 등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를 가리킨다. 개념적 내러티브가 학술적 개념이나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메타 내러티브는 ‘산업화’나 ‘테러와의 전쟁’ 같은 상위 개념의 내러티브로 정의할 수 있다(Baker, 2005: 4-13). 이를 외신번역에 적용해보면, 외신번역기사란 기자의 특정 프레임에 맞춰 외신기사의 명제들을 시간성, 상관성, 선택적 전유, 인과성에 따라 재구성한 공적 내러티브에 해당된다.

메이슨(Mason, 1997: 147)은 “번역자는 텍스트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출발 텍스트(ST)의 텍스트 세계(text world)를 자신의 세계관/이데올로기에 투과시켜 각기 다른 결과물(TT)을 만들어낸다”고 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같은 ST, 즉 같은 외신 기사라도 기자 개인과 조직 내/외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가진 TT로 번역될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2.2 거시구조 및 규칙

외신번역기사는 ST의 명제 한 개가 TT의 명제 한 개로 1대1 대응될 때도 있지만, ST 명제 여러 개가 TT 명제 한 개로 통합될 수도 있고, ST의 전체적인 의미가 TT에서는 한 개의 명제로 압축되거나 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어휘나 절 등 미시적 차원의 텍스트 분석으로는 잡아내기 힘든 속성들이다. 외신번역기사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틀이 프레임이고,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가 내러티브라면,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해 전체적인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분석틀이 요구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반다이크의 거시규칙을 들 수 있다. 반다이크(van Dijk, 1988)에 따르면 담화에는 여러 명제들이 있고 이들이 모여 미시구조(microstructure)를 이루며, 이를 토대로 거시구조(macrostructure)가 만들어진다. 이때 명제들은 생략, 구성, 일반화 등의 거시규칙에 따라 거시명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텍스트의 요지가 된다는 것이다.

외신번역 및 인용 기사는 ST의 거시명제 혹은 거시구조를 TT의 표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역으로 표제를 보면 ST 번역과정에서 어떤 거시규칙이 적용됐는지 유추할 수 있다. “뉴스 기사의 표제는 전체 텍스트의 주제(theme)를 형성한다”는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5: 29)의 말처럼 표제가 전체 기사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문의 어떤 부분을 선택 혹은 생략해 특정 주제의 표제로 구성했는지 그 거시규칙을 역추적 해보면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결과

3.1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0년 12월 17일 사이에 연합뉴스와 민영 일간지 인터넷판 및 순수인터넷 신문들이 천안함 관련 외신보도를 번역 및 인용한 기사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검색 결과 2010년 1년 동안 연합뉴스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한 외국 신문은 뉴욕타임스 > 월스트리트저널 > 워싱턴포스트 > 파이낸셜타임스 > 더타임스 > 가디언 순이었는데, 이 중 상위 4개 신문인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한 번역 및 인용 기사를 분석 데이터로 선정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 통신사가 작성한 기사는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된 단신기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이데올로기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분석한 외국 신문 기사에 포함된 경우도 있어 중복된다는 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뉴스를 판매하는 통신사인 만큼 권위 있는 해외 정론지의 시각을 전한다는 외신인용 보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기사 선정은, 먼저 연합뉴스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NYT, WSJ, WP, FT를 인용한 기사(TT1)를 각각 찾고, 네이버 뉴스 포털 검색³⁾으로 동일한 외신기사에 대한 타 신문의 번역기사(TT2, TT

3) 네이버 검색은 언론사 자체검색보다 검색기능이 우수하며 기사의 최종 출처를 정확

3...)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있을 경우 해당 외국 신문에서 원문(ST)을 찾는 식으로 했으며 이렇게 추출한 ST와 TT1, TT2(TT3...) 세 종류의 텍스트를 나란히 대조하며 분석했다.

검색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한 천안함 관련 외신기사는 WP 48개, NYT 44개, WSJ 43개, FT 18개로 나타났는데, 본고는 정부의 지원 및 간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라는 연합뉴스만의 특수한 상황이 번역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연구인만큼, 한국 정부나 한국 대통령이 주제로 다루졌거나 또는 주제와 관련된 명제에서 의미 있는 행위 주체 혹은 객체로 언급된 기사⁴⁾로 범위를 좁혔다.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외신보도에 대해 연합뉴스와 별도로 자체 번역한 국내 다른 신문기사가 1개 이상 있는 경우로 분석 대상을 제한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8세트의 ST-TT1-TT2를 얻었다. 각 텍스트의 분량은, ST인 영문기사의 경우 한 꼭지당 약 430단어에서 1750단어 사이였고, 한국어 기사인 TT1, TT2는 약 600자에서 1790자 사이였다.

이 데이터는 연합뉴스가 인용하는 외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일 사건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번역문의 비중이 기사마다 다르다는 점, 동일 원문을 자체 번역한 다른 신문기사들(TT2, TT3...)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정량적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각 기사의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거시적으로는 ST와 TT1, TT2의 프레임과 내러티브상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지, ST와 TT의 거시구조와 표제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미시적으로는 어휘, 행위 주체(agency)와 관련된 의미 변화와 그 효과를 중심으로 대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신번역기사의 특징 중 하나인 직간접인용 및 전달동사 사용 양상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검색으로는 조선일보 같은 전국종합일간지에 실린 연합뉴스 기사인지, 조선일보의 독자적인 기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4) 가령 중국과 북한의 관계만을 다룬 기사에서 “중국은 다음 주 한·미·일 3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기로 했다”처럼 한국이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는 경우는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3.2 분석 결과

3.2.1. 거시적 측면

3.2.1.1 프레임과 내러티브

ST의 프레임은 대체로 TT에서도 유지되는 편이었지만 내러티브는 요약 과정에서 선택적 전유가 많이 사용되었다.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예는 연합뉴스와 한겨레의 NYT 인용보도로, TT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1은 2010년 가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의 기고문에 대한 ST-TT1-TT2 분석이다. ST인 NYT는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요지의 기사로, 내용 중 천안함 사건이 관계 개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표1에서와 같이 연합뉴스와 민영언론사인 한겨레는 표제와 프레임에서부터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프레임의 차이는 내러티브, 나아가 미시적 번역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1)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의 NYT 인용 기사 비교

	ST	TT1	TT2
출처	2010.8.31 그레그 전 대사의 NYT 기고문	2010. 9.1 연합뉴스	2010.9.2 한겨레
표제	Testing North Korean Waters	“카터 방북, 미 대북강 경책 변화에 기여할 것”	그레그 전 대사 “러시아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하면 MB 큰 타격”
프레임	‘개혁/개선’ 프레임	‘개혁/개선’ 프레임	‘음모/조작’ 프레임
내러티브 구조	-카터 방북 미국의 대북 적대감 완화에 도움 (주제문) -이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두 전임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	-카터 방북 오바마 대 북 강경책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 (주제문) 생략	생략 생략

<p>-그래도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 관계개선 가능성은 있었음</p>	<p>-북한의 김대중 대통령 조문단과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 개선 가능성이 컸음</p>	<p>생략</p>
<p>-그러다 천안함 침몰사건 발발(인과성 나타나지 않음)</p>	<p>-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u>가능성 사라짐(ST에 없는 인과성 첨가)</u></p>	<p>생략</p>
<p>-한국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결론, 미국은 대북제재 및 한국과 합동군사훈련</p>	<p>-한미 대북 강경책 강화</p>	<p>생략</p>
<p>- “이명박 정부는 출구 없는 대북강경책 취하고 있으며, 현 남북관계는 치킨게임과 유사” 한국 외교관 인용</p>	<p>생략</p>	<p>-⑤) “이명박 정부는 출구 없는 대북강경책을 취하고 있으며 현 남북관계는 치킨게임과 유사” 한국외교관 인용</p>
<p>-문제는 북한이 계속 부인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소행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p>	<p>-그러나 중국/러시아는 동의하지 않음, 특히 러시아는 <u>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함(북한주장 생략, 한국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 생략)</u></p>	<p>-②북한이 일관되게 부인, 중국,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p>
<p>-러시아는 천안함이 어망에 걸려 올라온 기뢰가 폭발해 침몰한 것으로 비공</p>	<p>-천안함이 기뢰로 폭발했을 수 있다는 러시아 비공개 조사결과</p>	<p>-③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어망에 걸린 기뢰 폭발로 비공개 결론내림</p>

<p>개 결론</p> <p>-러시아 소식통, 러시아 조사결과 비공개는 <u>“이대통령에 정치적 타격 주고 오바마를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u></p> <p>-효과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노력에 천안함 침몰 원인이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음</p> <p>-오바마 정부는 대북 강경책 변화 필요성 인식중</p> <p>-백악관이 이 시점에 카터 보내 대북 강경책을 더 효과적 정책으로 바꾸려 한 점은 인정해줘야 할 듯</p>	<p>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인용</p> <p>생략</p> <p>-천안함 사건이 한반도 관련 문제 해결에 여전히 핵심적 선결사안으로 남아있음</p> <p>-오바마 정부는 대북 강경책 변화 필요성 인식중</p> <p>-오바마는 카터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북 강경책을 더 효율적 유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으려 했을 수 있음</p>	<p>-① 러시아 소식통, 러시아 조사결과 비공개는 <u>“이명박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 주고 오바마를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u>이라고 증언 (주제문)</p> <p>-④천안함 침몰원인 상반된 해석이 효과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ST에서 <u>central</u>이란 중립적 표현이 ‘걸림돌’이란 부정적 표현으로 의미 변화)</p> <p>생략</p> <p>생략</p>
--	---	---

표1에서 TT1과 TT2는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기사를 작성했고, 그에 따라

5) 번호는 ST의 내러티브 구조상의 순서

선택적 전유와 인과성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TT의 내러티브 구조와 어휘와 절 층위 의미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는 카터 방북이 미국의 강경책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제 하에 그 근거를 설명하는 도중 천안함 논란을 언급하고 있지만, TT1의 경우 기본적인 프레임과 내러티브는 대체로 ST와 비슷하나 미시적으로는 정부(대통령)의 위신(face)을 살리고 정부의 강경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첨가, 생략, 의미 변화 등의 번역 전략이 사용됐다. 반면, 진보 성향인 TT2는 TT1과 다른 프레임에서 출발했으며 선택적 전유에 따른 내러티브 변화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친정부적 TT1과는 상반된 관점에서 번역이 이뤄짐으로써 어휘 등 미시적 차원의 의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2.1.2 표제

표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의 가치와 내용이 전달되는 하나의 저널리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김관규, 김진원, 2010: 41), 외신인용기사(TT)의 표제는 외신문과 인용부호(“ ”)를 넣어 외신기사(ST)의 표제를 직접 인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 실제로는 ST의 표제가 아닌 ST의 명제들로 이루어진 거시구조가 TT의 표제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5건), 기자의 프레임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짧은 명제를 표제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1건). ST의 명제를 통합한 거시구조가 TT의 표제로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처럼 표제를 비교해보면 TT가 사용한 프레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번역 전략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표2] 연합뉴스와 민영언론사 외신인용기사의 표제 비교

	ST	TT1	TT2
1	US Implicates North Korean Leader in Attack	미 정보당국, 천안함 “김정일 명령” 결론 <NYT>	“김정일이 천안함 명령 내렸을 것”
2	South Korea proposes tax to help fund unification should North Korea collapse	“통일세 제안, 북 급변 사태 대비 엮두” <미 언론>	각국 언론도 ‘통일세’에 관심...”북 반발 초래” 전망도

3	South Koreans see their state as the real monster	“천안함 정부 대응, 영화 괴물과 흡사”	“천안함 의혹, 한국인들에게 정부는 ‘괴물’처럼 보인다”
4	Testing North Korean Waters	“카터 방북, 미 대북강경책 변화에 기여할 것”	그레그 전 대사, “러시아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하면 MB 큰 타격”

표2의 표제 1에서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김정일이 연루되어 있다고 본다는 ST의 표제가 TT1에서 미 정보당국이 김정일의 명령이라고 ‘결론’내렸다면 단정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미로 번역된 반면, TT2에서는 ‘내렸을 것’이란 추측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입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양태성의 차이는 실제로 TT1/TT2의 본문을 대조해봤을 때 어휘 등 미시적 측면에서의 의미 변화를 예고하는 표지가 되는 듯하다(예1).

[예1]

ST: A new American intelligence analysis of a deadly torpedo attack on a South Korean warship concludes that KimJong-il, the ailing leader of North Korea, must have authorized the torpedo assault, according to senior American officials who cautioned that the assessment was based on their sense of the political dynamics there rather than hard evidence.

TT1: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어뢰공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복수의 당국자들은 이 같은 분석이 확증보다는 정치 역학에 근거한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TT2: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정보 분석은 김정일 북한군방위원장의 승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런 결론이 구체적 증거보다는 한반도의 역동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표제 3의 경우, ST는 영화 괴물에 빗대어 한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국

민과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ST 표제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실제 괴물처럼 여긴다는 의미지만 TT1은 이를 정부의 ‘대응’이 영화 ‘괴물’과 ‘흡사’하다고 우회적이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미시적 측면에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었다.

3.2.2 미시적 측면

3.2.2.1 어휘적 의미 변화

ST에서 한국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묘사에 사용된 어휘가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을 때는 TT1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약화되거나 아예 생략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예2]

ST: “Generally speaking, people have a fair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Lee government, especially over the economy…” (2010. 4.19 WSJ)

TT1: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현 정권,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지만…” (2010.4.19 연합뉴스)

TT2: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지만…” (2010.4.19 머니투데이)

예2의 ST는 천안함 사건이 6월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WSJ 기사 중 한국의 한 정치학 교수의 말을 인용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묘사에 사용된 ‘꽤, 제법’이란 의미의 fairly가 연합뉴스에서는 ‘매우(very)’로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예3]

ST: Until that happens, South Korea will remain an explosively polarized democracy. And the authorities will continue to be blindsided by tortuous conspiracy theories and spectacular outbursts of rage from the masses *it* refuses to trust.(2010.3.31FT)

TT1: FT는 끝으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 당국은 음모론에 시달리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대중들의 분노 폭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2010. 4.1 연합뉴스)

TT2: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비틀린 음모와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 대중의 커다란 저항 속에 계속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이다. (2010.4.1 프레시안)

예3은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들이 ‘정부가 국민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국민들이 분노와 불신을 품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그런 갈등 요소들의 사회적 공론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뒤 결론 부분에 나온 내용이다. TT1에서는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정부가 음모론과 대중들의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게 될 것이다,’ 즉 미래에 일어날 변화처럼 표현한 데 비해, TT2에서는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는 will continue to의 의미를 살려 표현하고 있다. TT1은 정부가 처한 현 상황을 미래의 일처럼 표현함으로써 정부와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을 약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만 it을 ‘대중’으로 해석한 것은 it 자체가 수의 일치라는 문법적 모호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선택인지 분명치 않다.

[예4]

ST: Mr. Lee has handled the situation as well as he probably could. He has avoided provocative public statements while trying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that excludes military action,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North Korea must suffer some consequences. (2010.4.29 WP)

TT1: WP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왔다”며 “자극적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합의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2010.4.29 연합뉴스)

TT2: WP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Ø 그동안 자극적 발언을 피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합의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2010.4.30 CBS 노컷뉴스)

예4에서 ST의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잘 관리했다, 나름대로는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 가깝지만 TT1은 이를 “잘 관리해 왔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TT2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3.2.2.2 행위 주체(agency) 처리

연합뉴스의 경우 한국 정부 관리나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피동문으로 바꾸거나 행위 주체를 모호하게 처리한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신문기사는 능동문으로 그대로 살리는 경향이 관찰됐다.

[예5]

ST: Lee Myung-bak, the conservative president and a former boss of chaebol Hyundai's construction unit, last year pardoned Samsung's chairman after he was convicted of serious financial crimes.
(2010.3.31FT)

TT1: 반면 금융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 특별사면 되면서… (2010.4.1 연합뉴스)

TT2: 과거 현대건설이라는 재벌의 사장을 했던 보수주의 대통령 이명박은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의 회장을 사면했다. (2010.4.1 프레시안)

예5는 한국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와 불만, 불신을 품고 있다는 내용의 FT 기사를 인용한 부분이다. ST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사범인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행위 주체(agent)로 표현되어 있으나 TT1에서는 피동형을 사용해 행위 주체를 생략했다. 이는 두 언어의 타동성(transitivity) 규범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ST에서 주어인 이명박 대통령에 ‘보수적인(conservative)’이란 수식어와 더불어 ‘재벌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란 보어까지 붙여 행위 주체의 특성을 자세히 묘사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 원문 구조에 충실한 편인 TT1에서 왜 행위 주체를 굳이 생략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비록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지만 원문의 구조와 행위 주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TT2와 대조적이다.

[예6]

ST: Over an official lunch in late February, a top South Korean diplomat confidently told the American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that the fall would come “two to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the country’s ailing leader, Ms. Stephens later cabled Washington. A new, younger generation of Chinese leaders “would be comfortable with a reunited Korea controlled by Seoul and anchored to the United States in a benign alliance,”the diplomat, ChunYung-woo, predicted.

TT1: 전문에 따르면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과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간 오찬에서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지배하는 통일 한국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대화 내용이 기록돼 있다.

TT2: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통상부 차관 시절인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에게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중국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지배하는 통일 한국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 12.1 서울신문)

예6은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폭로한 미국 외교 전문 중 일부로, 북한이 2-3년 안에 몰락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관리가 자신 있게 얘기한 지 한 달 만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정도로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비판한 기사다. 한국 정부 관리가 미국 대사에 ‘자신 있게 얘기했다(confidently told)’는 부분이 연합뉴스에서는 누가 한 말인지 주체가 모호하게 처리되었는데, 한국 정부의 위신(face)을 살리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 성향의 서울신문이 같은 내용을 ‘장담하며’로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다. predicted도 연합뉴스에서는 “예상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반면, 서울신문은 “강조했다”고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연합뉴스의 외신번역기사 작성을 제도적 번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 관영 언론이라는 연합뉴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번역 및 기사 작성 과정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외신기사 및 그 번역을 토대로 한 외신인용 기사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발견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합뉴스는 가급적 ST의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편인 데 비해 진보 성향을 띠는 민영 매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정부에 부정적이거나 정부 입장과 상치되는 내용일 경우, 연합뉴스는 어휘적 의미, 행위 주체 등 미시적 측면의 개입을 통해 정부의 위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한 반면, 진보 매체는 그대로 살리거나 아예 표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3) 정부나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일 경우, 연합뉴스는 이를 더 강조하고 잉여 정보라 해도 생략하지 않은 데 비해, 진보 매체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합뉴스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영 언론사들의 외신번역에 비해 좀 더 친정부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데이터의 주제와 분석 범위가 제한된 예비 연구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번역 전략과 관련된 기자 심층 인터뷰나 독자 반응에 대한 연구,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번역자로 번역 주체를 달리 했을 경우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한 연구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대중의 현실 인식과 여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내 모든 주요 일간지의 외신보도를 사실상 준 관영 언론 기관인 연합뉴스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가 기대하는 번역의 정확성, 객관성, 중립성이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제도적 번역의 특성을 고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외신기사가 특히 번역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번역 교육과 관련된 함의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7-40.
- 김관규 · 김진원 (2010)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제 차이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39-72.
- 김원용 · 이동훈 (2004) 「신문의 보도 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4): 351-398.
- 김정현 (2001)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45(4): 35-75.
- 박선희 (2002)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에 대한 담론분석」, 『정치 정보 연구』 5(1): 209-248.
-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한국언론학보』 51(1): 229-251.
- 이원섭 (2006)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35: 329-361.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4(3): 399-444.
- Baker, Mona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70.
- (2005) 'Narratives in and of Translation', *SKASE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1(1): 4-13.
- Entman, Robert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Oxford U P.

- Fowler, Roger (1987) 'The Intervention of the Media in the Reproduction of Power', in I.M. Zavala, T. van Dijk, and D.M. Diaz (eds.) *Approaches to Discourse, Poetic and Psychiatry*, Amsterdam: Benjamins.
-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 Goffman, Erving (1986)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Northeastern U P.
- Hatim, Basil and Mason, Ia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ng, Ji-Hae (2010) 'Positioning and Fact Construction in Translation', in Mona Baker, Maeve Olohan and Maria Calzaza Perez(eds.) *Text and Context*, London: St Jerome.
- (2004) 'Evaluation of South Korea in News Media Translation: A Critical Perspective', *Discourse and Cognition* 11(1): 1-30.
- Kim, Young Shin (2003) 'Translator's Mediation in Ideological Issues - A Critical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4(2): 175-190.
- Shoemaker, Pamela and Reese Stephen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 Tannen, Deborah (1993) *Framing in Discourse*, Oxford: Oxford U P.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Abstract]

**A Study on the Ideological Orientations Reflected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An Analysis of Translation-Based Korean News Articles on the Sinking
of the Cheonan**

Song, Yonsuk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deological orientations are reflected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y analyzing Korean news articles containing translations of English news and commentaries of foreign news publications on the sinking of the naval vessel Cheonan. Drawing on the theories and concepts of frames, narratives, macrostructure, and agency, the paper explores how Korean journalists as institutional translators consciously and/or unconsciously try to change the meanings and tones of the texts so as to portray the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in either a positive or a negative light, depending on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s.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ight sets of English news articles from foreign news media(ST), Korean articles based on translations of STs published by Yonhap News Agency as a quasi-governmental news agency(TT1), and articles written in a similar manner by local, private news media(TT2). The focus was on the shifts in narrative structures, frames, and headlines as well as on lexical changes. The study found that on both macro- and micro-levels, the TT1s tend to emphasize the merits of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while trying to gloss over their weaknesses. By contrast, the TT2, which mostly have left-wing orientations, showed the opposite tendency.

▶ Key Words: institutional translation, ideology, frame, narrative, news translation

송연석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

yonsuk@gmail.com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뉴스번역

논문투고일: 2011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1일